

안전한 방폐물관리 통해 미래세대에 책임 다할것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차례의 확산 위기에서도 상시위기대응과 철저한 개인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그동안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행스런 현실에도 변종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직한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2021년의 공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한해를 위한 토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굵직한 사업 이슈를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중준위 방폐물 인수를 위한 기반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분야는 국가 기본계획의 구체화는 물론 법제도의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명실 공히 모든 종류의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스템 정비와 사업 역량 향상을 통해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2022년에는 방폐물사업에 잠재된 사업 이슈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들춰내는 행위를 격려하고 권장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중저준위 방폐물 분야의 사업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안전에 더욱 더 집중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표층 처분시설의 본격적인 건설이 예정된 만큼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공단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

니다. 단발성의 시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속적인 가치창출에 집중할 것입니다. 홍보관, 환경친화단지는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윤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윤리 경영의 영역은 비위 행위를 넘어 직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까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후속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흩어진 윤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부서를 신설한 것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개인적인 소망과 뜻한 바가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HIF**